참여정부의 복지정책 방향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다. 참여정부는 출범당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적정수준의 복지혜택을 제공하며, 복지정책의 수립·집행·평가과정에 국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참여복지」이념을 제시하였다. 이는 국가책임과 국민의 정책참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정부의 생산적 복지 이념과는 차이가 있다.

참여복지 이념하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1년간 국민을 위한 각종 보건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 차상위계층 보호강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빈곤층 생활안정에 노력하는 한편,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고령사회대책추진체계를 강화하였다. 공공보건의료 확충의 개념적 틀을 완성하여 의료에 있어 국가책임 강화의 필요성을 확산시키

참여정부2년차인2004년은지난1년간의성과를바탕으로
여러전문가, 각계각층의의견이수렴된참여복지5개년계획을마련,
이를통해신빈곤층과가정해체문제,
유래를찾을수없는심각한저출산과고령화추세,
건강과질병에대한국민의욕구증가,
세계화에따른치열한국제경쟁상황등산적해있는보건복지분야정책요구에
더욱적극적으로대응해나갈것이다.

고, 종합적 금연정책을 통해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사스 유입방지에 성공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였다. 20여 년간 사회적 논란거리였던 건강보험 통합을 완성하고, 8년 만에 당기 재정흑자를 실현함으로써 사회연대를 강화하고 건강보험을 내실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였다. 국민연금 제도개혁을 적극 추진하여 후세대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판단을 대내외에 제시하였다.

참여정부 2년차인 2004년은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참여복지의 실현을 위해 더욱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보건복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한해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각계 각층의 의견이 수렴된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신빈곤층과 가정해체 문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 건강과 질병에 대한 국민의 욕구 증가, 세계화에 따른 치열한 국제경쟁 상황 등 산적해 있는 보건복지분야 정책 요구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복지와 경제,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하는 정책을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우리 모두의 꿈인 ‘ 행복한 사회, 건강한 국민 ’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